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위로 화행 연구

- 2, 30대의 친한 친구를 중심으로 -

박 향 춘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제1저자)

양 명 희

(중앙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하여 실제적으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위로 화행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학습자 중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2, 30대를 대상으로, 친한 사이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로 상황을 조사하여 빈도순으로 10개의 위로 상황을 선정하였다. 그 다음 한국어 모어 화자 역시 2, 30대를 대상으로 하여 각 상황별로 친한 사이에서 선호하여 사용하는 위로 화행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화자의 성별뿐 아니라 청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위로 화행 사용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성 간에는 실패, 이별, 손실 상황에서 화행상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이성 간에는 이별, 질책 상황에서 화행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외의 상황에서 위로 화행은 화, 청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 선호되는 특징적인 위로 화행이 나타나 남자와 여자의 화행상 특징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위로 화행 교육을 위한 기초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위로 화행, 동성 간, 이성 간, 위로 화행 유형, 위로 상황, 한국어 교육

1. 서론

한국어 학습자들의 화용적 능력¹⁾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화행 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Thomas(1983)²⁾에 의하면 외국어 학습자가 화용적 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오류가 나타날 경우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보다 의사소통에서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³⁾ 실제로 한국어 학습자들은 청자나 상황에 맞는 발화를 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오해를 받거나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며, 학습자들 자신도 모어 화자의 말을 화용적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화자와 청자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화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러한 요구가 반영된 한국어 화행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화행 연구는 거절, 요청, 불평, 칭찬, 사과, 감사 등에 대한 것이 많은데 이는 이들 화행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 화자나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언어문화적으로 다른 언어와의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칭찬이나 사과, 감사 등의 화행은 학습자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하고 세련된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거절이나 요청, 불평 화행만큼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본고는 한국인들의 위로 화행⁴⁾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 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으로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경우 관습적 표현이 쓰이겠지만 수준이 높아지면 청자와의 관계와 위로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야만 목적하는 바(위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화행이다. 지금까지 위로 화행에 관한 연구들은 화행 대조 연구가 주를 이룬바,⁵⁾ 본고에서는 2, 30대⁶⁾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2, 30

1) Hymes(1972)와 Canale & Swain(1980)에 따르면 화용적 능력은 발화 상황의 맥락에 맞게 적절하게 발화를 생산, 이해하는 능력이다.

2) Thomas, J. A., "Cross 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1983, p.92 참조.

3) Thomas(1983)에서는 문법적으로 부족함을 알게 되면 모어 화자는 그것에 대해 용인하는 것으로 보이나 화용적 실패일 경우 모어 화자는 언어적 결핍이 아닌 무례함(boorishness)이나 악감정(ill-will)으로 간주한다고 한다(p.97).

4) Burluson(1982)에 의하면 위로는 ‘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언어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위로를 하는 활동이 많이 발생한다(p.1577).

대 한국어 모어 화자들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⁷⁾에 필요한 위로 화행 교육을 위해 2, 30대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위로 화행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 거주 중인 2, 30대의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친밀한 관계의 모어 화자들과의 관계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위로 상황⁸⁾을 조사하고 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2, 30대의 대학(원)생 혹은 직장인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선호 위로 화행을 조사하였다. 시험 조사 후 위로 상황과 화, 청자의 성별⁹⁾에 따라 위로 화행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II. 대처하기 어려운 위로 상황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위로 상황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에 거주 중인 104명의 고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다. 어떤 상황에서 위로하는 것이 힘든지 세 가지를 적도록 하였는데,

-
- 5) 위로 화행에 대한 대조 연구로는 황유진(2010), 박햇님(2012), 신혜진(2014), 우월(2019) 등이 있다. 박햇님(2012), 신혜진(2014)은 20대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중국어 모어 화자 세 집단을 비교하였고, 황유진(2010)은 2, 30대 중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우월(2019)은 20대, 40대 중국인 모어 화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두 집단의 위로 화행 실태 양상을 조사하였다.
 - 6) 한국어 고급 학습들의 나이는 주로 2, 30대가 대부분이므로 조사 대상을 2, 30대로 설정하였다.
 - 7) Burleson & Holmstrom(2008)에 의하면 위로는 긴밀한 개인적 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다(p.560).
 - 8) 이은주(2010)는 ‘이별, 병고, 실패, 손실’ 4가지, 황유진(2012), 박햇님(2012), 우월(2019)은 ‘병고, 손실, 실패, 결별(이별, 헤어짐), 죽음’ 5가지, 신혜진(2014)은 ‘이별, 병고, 실패, 손실, 죽음, 갈등’ 6가지의 상황 주제를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9) 기존 연구들에서는 화자의 성별만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청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사용 양상이 달리 나타나 이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의 예시를 주었고 답변 형식은 ‘누가 어떤 위로 상황일 때’로 하였다. 조사는 직접 조사 방식과 SNS(카카오톡 혹은 WeChat)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효하지 않은 4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00부의 결과가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의 인적 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상황 선정 조사 대상자 인적 사항 결과

N=100

특성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	40	40.0
	여	60	60.0
나이	20대	85	85.0
	30대	15	15.0

조사 대상자 100명 중 남자가 40명(40.0%), 여자가 60명(60.0%)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나이는 20대가 85명(85.0%), 30대가 15명(15.0%)으로 20대의 비율이 높다.

2. 위로 상황 선정

100명의 조사 대상자가 각각 세 개씩 대처하기 어려운 위로 상황을 적어 총 300개의 위로 상황이 모아졌으며, 빈도별로 순위를 매긴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위로 상황 조사

N=300(100*3)

순위	상황	N	백분율(%)
1	실패 상황(시험,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47	15.7
2	이별 상황(애인과 헤어졌을 때)	39	13.0
3	갈등 상황(친구나 부모님과 싸웠을 때)	28	9.3

순위	상황	N	백분율 (%)
4	죽음 상황(누가 죽었거나, 장례식장에 갔을 때)	25	8.3
5	병고 상황(감기에 걸렸거나 다쳤을 때)	21	7.0
6	손실 상황(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20	6.7
7	스트레스 상황(공부 혹은 일 때문에 힘들어할 때)	15	5.0
8	질책 상황(혼났을 때)	13	4.3
9	오해 상황(남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7	2.3
10	울음 상황(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슬프게 울 때)	5	1.7
11	금전적으로 힘들어할 때	3	1.0
12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3	1.0
13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할 때	2	0.7
14	기타 상황(고백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혼자 우울해할 때, 사는 게 힘들다고 할 때, ...)	72 (1*72)	24.0
합계		300	100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위로 상황 6개 -갈등(3위), 이별(2위), 손실(6위), 실패(1위), 병고(5위), 죽음(4위) - 가 모두 6위 안에 포함되었다. 이외에 조사 결과에서 10회 이상의 빈도를 보인 스트레스 상황, 질책 상황 등 4개의 상황을 포함하여 모두 10개의 위로 상황을 선정하였다.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위로 상황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친구가 애인과 싸웠을 때, 친한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등으로 위로 상대는 대부분 친구이다. 2, 30대의 주변 인물 중 친구가 가장 빈번하게 위로 상황의 대상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각 상황에서의 위로 대상을 친한 친구¹⁰⁾, 변인은 동성 간, 이성 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상황 설정은 각 상황 중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10) 대학원생 및 직장인 15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한 결과 소원한 관계일 때는 형식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위로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이 나온 관계로 위로 대상을 친한 친구로 설정하였다.

〈표 3〉 각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 설정

상황	구체적인 내용
실패	열심히 준비한 시험(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
이별	연인과 헤어져서 슬퍼하는 상황
병고	감기로 아파서 힘들어하는 상황
갈등	친한 친구와 싸워서 속상해 하고 있는 상황
죽음	조부모님(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황
손실	중요한 물건(핸드폰, 지갑 등...)을 잃어버린 상황
스트레스	공부(혹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
질책	부모님(혹은 교수님)께 혼난 상황
오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은 상황
울음	이유를 말하지 않은 채 슬프게 울고 있는 상황

Ⅲ. 위로 화행 사용 양상 분석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방법

위로 화행 조사는 화행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 Discourse Completion Tests)를 작성하여 이메일 및 직접 배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인의 선호 위로 화행 조사는 2, 30대의 한국인 대학(원)생 및 직장인 16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유효하지 않은 16명의 설문지를 제외한 152부의 결과가 수집되었다. 조사 대상의 인적 사항 결과를 보면 각각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선호 위로 화행 조사 대상자 인적 사항 결과

N=152

특성	구분	N	백분율(%)
성별	남	70	46.1
	여	82	53.9
나이	20대	104	68.4
	30대	48	31.6

152명의 조사 대상자 성별은 남자가 70명(42.0%), 여자가 82명(58.0%)으로 여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이는 20대가 85명(64.9%), 30대가 46명(35.2%)으로 20대가 특히 많은 비중을 나타냈다.

2. 분석 기준

담화 완성형 테스트를 통해 위로 화행 표현을 수집한 후 양상 분석을 위해 위로 화행 양상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따라 적극적 표현과 소극적 표현을 나누어 유형을 분류하거나 세분화된 기준에 따라 19개에서 23개의 위로 화행의 유형을 분류한 바 있다.¹¹⁾ 이 연구에서는 신혜진(2014)의 19가지 유형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농담하기’와 ‘비언어적 행동’, ‘편들기’와 ‘슬픈 감정 해소시켜주기’를 추가하여 총 23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¹²⁾ 각 위로 유형과 그 특징 및 예시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한 것에서 추출하여 <부록 1>로 별첨하였다.¹³⁾

-
- 11) 이은주(2010)에서는 위로 화행 유형을 화자가 청자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적극적 표현 15개, 소극적 표현 8개 등 총 23개로 나누었다. 황유진(2011)에서는 적극적 유형과 소극적 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21개의 위로 화행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박햇님(2012)에서는 황유진(2011)의 위로 전략 분석틀을 참고하되 ‘질책하고 주의주기’와 ‘권면하기’를 통틀어 ‘충고 및 조언하기’로 수정하고 ‘노력 칭찬하기’는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언어적 화행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침묵하기’, ‘위로가 필요 없음’,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총 21개의 위로 화행 유형을 제시하였다. 신혜진(2014)은 다시 박햇님(2012)에서의 ‘침묵하기’, ‘위로가 필요 없음’, ‘비언어적 행동’ 세 가지의 유형을 통틀어 ‘침묵하기’에 포함시키고 총 19가지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 12) 기타로 기존의 ‘침묵하기’는 개념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침묵 및 회피하기’로 유형 이름을 수정하였다.
 - 13) 23개의 유형은 전체 선호 사용 빈도순으로 제시하였다. 이중 18의 ‘일반화하기’와 19의 ‘바람 표현하기’, 20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기’, 21의 ‘의례적 표현하기’ 22의 ‘관습적 표현으로 빗대기’는 모든 위로 상황에서 5위 안에 들지 않았다. 이는 본고의 조사 대상을 2, 30대의 친한 친구로 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의례적 표현하기’는 친하지 않은 공식 관계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의례적 표현보다는 발화 목적적인 위로를 성공시킬 수 있는 화행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다.

3. 사용 양상 결과 분석

2장에서 선정한 10개의 위로 상황에서 화, 청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되는 위로 화행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용 양상 비교는 사용 빈도가 높은 1~5위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3-1 실패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실패 상황인 ‘열심히 준비한 시험(프로젝트)의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 빈도는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남자는 이번에는 결과가 안 좋지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5.7%)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여자들 간에도 선호되었으나(12.6%), 가장 선호하는 유형은 실패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 좋은 측면도 있음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9.2%)였고 그 다음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키는 ‘안심시키기’(13.2%)가 뒤를 이었다. 또한 남자들은 상대방에게 현재 실패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한 이유나 잘못 등을 짚어 주는 ‘충고 및 조언하기’와 심각한 분위기를 벗어나고자 농담을 던지는 ‘농담하기’가 10%가 넘게 선호된 반면 이 둘의 선호가 여자들 간에서는 낮았다.¹⁴⁾ 결과적으로 청자의 마음을 편해지도록 하는 화행은 여자가 그 사용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실패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5.7%)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9.2%)
충고 및 조언하기(14.8%)	안심시키기(13.2%)
기분 전환시키기(13.0%)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2.6%)
농담하기(11.1%)	기분 전환시키기(9.3%)
격려하기(11.1%)	격려하기(8.6%)

14) 여자들 간의 ‘충고 및 조언하기’는 7.9%, ‘농담하기’는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6>과 같다.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 전망 제시하기’와 ‘긍정적 측면 부각시키기’로 동일하며 ‘충고 및 조언하기’, ‘격려하기’도 비슷한 비율로 선호되었다. 차이는 남자가 여자를 위로할 때는 ‘공감하기’가, 여자가 남자를 위로할 때는 ‘농담하기’가 선호하여 사용된다는 점이다. ‘공감하기’는 여자가 여자를 위로할 때 7.3% 사용된 유형으로 청자인 여자를 배려한 화행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농담하기’ 역시 남자들 간 위로 화행으로 11.1%를 차지한 유형으로 이 역시 화자인 여자가 청자인 남자의 화행적 특성을 고려한 화행이라고 할 수 있다.

<표 6> 실패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긍정적 전망 제시하기(17.4%)	긍정적 전망 제시하기(16.1%)
긍정적 측면 부각시키기(16.5%)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0.2%)
공감하기(13.8%)	격려하기(10.2%)
충고 및 조언하기(12.8%)	충고 및 조언하기(10.2%)
격려하기(11.9%)	농담하기(9.3%)

3-2 이별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이별 상황인 ‘연인과 헤어진 상황’에서 남자들끼리는 기분을 풀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함께 하려고 제안하는 ‘기분 전환시키기’(23.5%)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여자들끼리는 헤어진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방을 위로하는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22.3%)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 편을 들어주면서 상대방을 두둔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희망을 주는 ‘편들기’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가 2위(16.1%), 3위(15.4%)로 선호가 높은 특징을 보이는 반면, 남자들은 현재의 감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풀려는 ‘농담하기’가 3위(11.8%)로 나타났다.

<표 7> 이별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기분 전환시키기(23.5%)	긍정적 측면 부각시키기(22.3%)
긍정적 측면 부각시키기(13.7%)	편들기(16.1%)
농담하기(11.8%)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5.4%)
격려하기(9.8%)	충고 및 조언하기(8.4%)
단념시키기(9.8%)	기분 전환시키기(7.7%)

이별 상황에서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 <표 8>을 보면, 남자는 여자에서 ‘편들기’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기분 전환시키기’를 1, 2, 3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을 보면 ‘편들기’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기분 전환시키기’는 여자들 간에도 선호하는 위로 화행에 속한다. 화자인 남자가 청자인 여자를 고려하여 화행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자는 남자에게 상대방의 상태에 반응을 보여 관심을 표하는 ‘관심 표현하기’와 현재의 상황이 생긴 데에 대한 이유나 잘못을 얘기해 주는 ‘충고 및 조언하기’가 1, 2위로 나타났다. ‘농담하기’도 3위로 선호되고 있는데 청자가 남자임을 고려한 화행으로 해석된다.

<표 8> 이별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편들기(16.5%)	관심 표현하기(13.3%)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4.7%)	충고 및 조언하기(11.7%)
기분 전환시키기(13.8%)	농담하기(10.2%)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1.9%)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0.2%)
격려하기(9.2%)	도움 제시하기(8.5%)

3-3 병고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병고 상황인 ‘감기가 걸려서 아픈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표 9>와 같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현재 상태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관심 표현하기’와 ‘대안 제시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 ‘격려하기’가 5위 안에 들었다. 재미있는 결과는 남자들이끼리는 ‘농담하기’가 선호 위로 화행 1위인 점

이다. 직접적인 말로 위로를 표현하는 것을 어색해하는 남성들의 언어 습관을 엿볼 수 있다. 여자는 아픈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 제시하기’ 유형이 2위로 나타나 남성들 간의 위로 화행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9〉 병고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농담하기(26.7%)	관심 표현하기(39.7%)
관심 표현하기(22.8%)	도움 제시하기(17.8%)
대안 제시하기(18.8%)	대안 제시하기(16.4%)
충고 및 조언하기(13.8%)	충고 및 조언하기(11.09%)
걱정하기(5.9%)	걱정하기(4.8%)

병고 상황에서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0>과 같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아픈 상태에 대해 어떠한지 관심을 보이는 ‘관심 표현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¹⁵⁾ 그 밖에 위로 화행도 비슷하다. 다만 남자는 상대방을 걱정해 주는 ‘걱정하기’가 8%, 여자는 ‘도움 제시하기’가 8.3%로 나와 병고 상황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차이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여자의 경우 청자가 여자일 때 선호하지 않는 ‘농담하기’도 10.8%의 비율을 보인 점은 앞의 실패 상황이나 이별 상황과 마찬가지로 청자가 남자임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10〉 병고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관심 표현하기(36.6%)	관심 표현하기(30.8%)
대안 제시하기(19.6%)	대안 제시하기(21.7%)
충고 및 조언하기(12.5%)	충고 및 조언하기(17.5%)
걱정하기(8.0%)	농담하기(10.8%)
농담하기(6.3%)	도움 제시하기(8.3%)

15) 동성 간에서도 남녀 모두 ‘관심 표현하기’의 사용률이 아주 높았는데, 이는 화자, 청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병고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화행이라고 볼 수 있다. 박햇님(2012:38), 이은주(2010:37)에서도 병고 상황에서 ‘관심 표현하기’가 사용률이 각각 37.0%, 42.4%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3-4 죽음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죽음 상황인 ‘조부모님(혹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화행 유형은 다음 <표 11>과 같다. 남녀의 사용 양상은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힘을 북돋아 주는 ‘격려하기’, 말이 아닌 옆에 있어 주거나 안아주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¹⁶⁾, 직접 도움을 제안하는 ‘도움 제시하기’와 청자의 마음을 이해함을 표현하는 ‘공감하기’를 많이 사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죽음 상황에서 동성 간일 때 남녀는 선호하여 사용하는 위로 화행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11> 죽음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격려하기(18.4%)	비언어적 행동(26.5%)
비언어적 행동(17.4%)	도움 제시하기(21.2%)
도움 제시하기(16.3%)	격려하기(14.1%)
공감하기(13.1%)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0.6%)
관심 표현하기(10.9%)	공감하기(8.8%)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격려하기’, ‘도움 제시하기’, ‘비언어적 행동’이 순위가 높으며, ‘여-여’와 마찬가지로 ‘여-남’의 경우도 ‘비언어적 행동’이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죽음 상황에서 ‘비언어적 행동’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주로 선호하는 위로 화행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자는 동성 간에서와 마찬가지로¹⁷⁾ 여자에 비해 ‘관심 표현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남’뿐 아니라 ‘남-여’ 관계에서도 ‘관심 표현하기’가 높게 나타났다.

16) Burleson & Holmstrom(2008)에 의하면 적극적인 비언어적 행동은 상대방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p.561).

17) ‘관심 표현하기’ 사용률은 남-남 간 10.9%, 여-여 간 1.8%로 조사되었다.

〈표 12〉 죽음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격려하기(17.5%)	비언어적 행동(21.6%)
도움 제시하기(16.5%)	도움 제시하기(18.9%)
관심 표현하기(15.5%)	격려하기(17.1%)
비언어적 행동(10.6%)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0.8%)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0.6%)	공감하기(10.8%)

3-5 갈등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갈등 상황인 ‘친한 친구와 싸운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3>과 같다. 남녀 모두 현재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상대방을 질책하거나 타이르는 표현인 ‘충고 및 조언하기’를 가장 선호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을 내놓는 ‘대안 제시하기’는 남녀 모두 선호하였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률이 훨씬 높았다. 그리고 상대방의 편을 들어주는 ‘편들기’ 역시 남녀 모두 선호하였으나 여자의 선호율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문제 상황에서 남자들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여자들은 편들기를 더 잘한다는 남녀 언어의 특징¹⁸⁾이 반영되어 있는 결과이다.

〈표 13〉 갈등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충고 및 조언하기(23.2%)	충고 및 조언하기(19.5%)
대안 제시하기(19.2%)	관심 표현하기(18.7%)
관심 표현하기(14.1%)	편들기(16.4%)
편들기(8.1%)	대안 제시하기(8.6%)
단념시키기(8.1%)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8.6%)

18)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2008)에서는 남자는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관습이 있고(p.18) 여자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해 주고 상대가 자기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고 공감을 표시해 주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낀다고 하였는데(p.139) 이러한 남녀의 특성에 의해 남자는 ‘대안 제시하기’를, 여자는 ‘편들기’ 사용을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갈등 상황에서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4>와 같다. 남자는 여자에게 갈등 상황이 청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책임 돌리기’를 많이 사용하는 한편 여자는 남자에게 ‘충고 및 조언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는 재미있는 결과이다. ‘책임 돌리기’는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화행으로 여자 간의 대화에서도 선호되지 않았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을 위로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충고 및 조언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이를 위로로 받아들일지는 앞으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¹⁹⁾

<표 14> 갈등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책임 돌리기(18.4%)	충고 및 조언하기(31.4%)
관심 표현하기(18.4%)	관심 표현하기(15.2%)
편들기(16.1%)	편들기(10.5%)
충고 및 조언하기(11.5%)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0.5%)
대안 제시하기(9.2%)	대안 제시하기(8.6%)

3-6 손실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손실 상황인 ‘중요한 물건(핸드폰, 지갑 등)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5>와 같다. 남녀 모두 ‘관심 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다음으로 남자는 ‘충고 및 조언하기’, 여자는 ‘도움 제시하기’를 ‘관심 표현하기’와 마찬가지로 선호하였다. 또한 남자들은 여자와 달리 ‘농담하기’와 ‘대안 제시하기’를 선호하는 반면 여자들은 ‘격정하기’와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손실 상황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방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2008)에 의하면 여자에게는 조언과 충고가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여진다고 하였는데 이런 이유로 여자는 남자에게 ‘충고 및 조언하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p.22).

〈표 15〉 손실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관심 표현하기(21.7%)	관심 표현하기(22.4%)
충고 및 조언하기(16.8%)	도움 제시하기(22.4%)
농담하기(15.8%)	걱정하기(10.5%)
대안 제시하기(14.9%)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9.8%)
도움 제시하기(7.9%)	충고 및 조언하기(9.1%)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6>과 같다. 남녀는 전체적으로 사용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재미있는 점은 남자가 남자에게 위로할 때는 높지 않았던 ‘도움 제시하기’가 여자를 상대로 할 때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 여자끼리는 잘 사용하지 않는 ‘충고 및 조언하기’가 남자를 상대로 할 때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형으로 조사된 점이다. 또한 여자는 동성 간에서 사용률이 낮았던²⁰⁾ ‘농담하기’를 상대가 남자일 때 그 사용이 훨씬 많아졌다. 화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위로 화행에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청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위로 화행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표 16〉 손실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관심 표현하기(33.3%)	관심 표현하기(20.0%)
도움 제시하기(18.6%)	충고 및 조언하기(17.3%)
대안 제시하기(12.7%)	도움 제시하기(15.4%)
충고 및 조언하기(8.8%)	농담하기(12.7%)
농담하기(8.8%)	대안 제시하기(10.9%)

3-7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스트레스 상황인 ‘공부(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남녀 모두 상대방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하는 ‘격려하기’를 가장 선호하였고, ‘기분 전환시키기’도 선호되었다.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사용률이

20) 여-여 관계에서의 ‘농담하기’ 사용률은 3.5%이다.

조금 높았고, ‘충고 및 조언하기’는 여자가 남자보다 사용률이 조금 높았다. 또한 남자는 여자와 달리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대안 제시하기’도 선호하여 사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17〉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격려하기(19.4%)	격려하기(21.4%)
기분 전환시키기(14.3%)	충고 및 조언하기(19.7%)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14.3%)	기분 전환시키기(16.2%)
대안 제시하기(12.2%)	공감하기(9.4%)
충고 및 조언하기(11.2%)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6.8%)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8>과 같다. 대체로 선호되는 유형이 같았으나, 남자는 여자에게 ‘대안 제시하기’를 ‘격려하기’ 다음으로 선호하였는데, 이는 남-남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바 남자들의 화행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여자는 남자에게 ‘충고 및 조언하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었고 남자보다 그 사용률이 훨씬 높았다. 여자가 남자에게 ‘충고 및 조언하기’를 선호하는 양상은 갈등 상황과 손실 상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호가 여자가 남자에게 사용하는 특징적인 위로 화행 인지는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²¹⁾

〈표 18〉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격려하기(20.6%)	충고 및 조언하기(24.0%)
대안 제시하기(17.2%)	격려하기(19.2%)
기분 전환시키기(12.6%)	기분 전환시키기(16.3%)
충고 및 조언하기(9.2%)	관심 표현하기(8.6%)
관심 표현하기(9.2%)	농담하기(7.7%)

21)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2008)에서는 남녀 사이에서 조언과 충고에 대해 여자는 관심의 표시로 받아들이지만 남자는 오히려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였다(pp.22~33).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 이성 간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충고 및 조언하기’에 대한 사용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3-8 질책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질책 상황인 ‘부모님(혹은 교수님, 직장 상사)께 혼난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 <표 19>와 같다. 남녀 모두 현재 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 상대방을 타이르거나 다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언하는 표현인 ‘충고 및 조언하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는데 특히 남자가 사용률이 매우 높다. 또한 남자는 ‘기분 전환시키기’가 두 번째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여자보다 선호율이 높다. 여자들은 ‘충고 및 조언하기’가 가장 선호되기는 했으나 남자들에 비해 선호율이 낮으며 ‘공감하기, 편들기’처럼 상대와 같은 마음임을 표현하는 것을 선호한다.

<표 19> 질책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충고 및 조언하기(32.6%)	충고 및 조언하기(17.8%)
기분 전환시키기(16.3%)	공감하기(10.9%)
안심시키기(9.8%)	편들기(9.3%)
관심 표현하기(8.7%)	기분 전환시키기(8.5%)
격려하기(7.6%)	관심 표현하기(7.8%)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의 <표 20>과 같다. 동성 간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충고 및 조언하기’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남자의 동성 간에서 선호되었던 ‘안심시키기’가 여-남 관계에서 두 번째로 선호되었으며(관심 표현하기와 동물임), 여자의 동성 간에 선호되었던 ‘편들기’가 남-여 관계에서도 두 번째로 선호되었다(관심 표현하기와 동물임). 두 양상 모두 화자가 청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여자는 ‘기분 전환시키기’도 선호하였는데, 남자는 동성 간에서의 높은 사용과는 달리 남-여 관계에서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자는 ‘궁정적이 측면 부각시키기’와 ‘단념시키기’를 선호하는 특징도 보였다.

〈표 20〉 질책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충고 및 조언하기(18.1%)	충고 및 조언하기(24.8%)
편들기(17.0%)	안심시키기(9.5%)
관심 표현하기(17.0%)	관심 표현하기(9.5%)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11.7%)	기분 전환시키기(8.6%)
단념시키기(10.6%)	편들기(7.6%)

3-9 오해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오해 상황인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의 <표 21>과 같이 나타났다. 남녀 모두 ‘편들기’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고, ‘도움 제시하기, 충고 및 조언하기’가 그다음으로 선호되었다. 남자의 경우 ‘관심 표현하기’가, 여자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가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성 간 위로 화행의 선호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1〉 오해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편들기(22.2%)	편들기(27.6%)
충고 및 조언하기(15.6%)	충고 및 조언하기(10.6%)
관심 표현하기(14.4%)	도움 제시하기(10.6%)
도움 제시하기(13.3%)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8.1%)
단념시키기(13.3%)	단념시키기(8.1%)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 역시 남녀가 크게 다르지 않다. 남녀 모두 ‘편들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심 표현하기’와 ‘대안 제시하기’도 공히 선호되었다.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공감하기’와 ‘도움 제시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공감하기’는 실패 상황에서, ‘도움 제시하기’는 손실 상황에서 남자들이 여자를 상대로 대응할 때 선호했던 위로 화행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충고 및 조언하기’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갈등, 손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성 간에 남자는 여자보다 상대방의 불편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화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오해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편들기(17.9%)	편들기(22.8%)
관심 표현하기(12.3%)	충고 및 조언하기(20.0%)
공감하기(11.3%)	단념시키기(10.5%)
도움 제시하기(9.4%)	관심 표현하기(10.5%)
대안 제시하기(9.4%)	대안 제시하기(9.5%)

3-10 울음 상황에서의 위로 화행

울음 상황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슬프게 우는 상황’에서 동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다음의 <표 23>과 같다. 남녀 모두 상대방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는 ‘관심 표현하기’가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여자는 그다음으로 ‘비언어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와는 다르게 현재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울게 하는 ‘슬픈 감정 해소시키기’가 그다음으로 선호되었다. 남자는 울고 있는 동성 친구를 달래주는 것보다 남자가 왜 그러냐는 식인 ‘충고 및 조언하기’가 두 번째로 선호되었으며²²⁾ 그다음으로는 ‘기분 전환시키기’를 사용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남-남’에서 5위인 ‘침묵 및 회피하기’(7.6%)는 ‘여-여’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³⁾ 결과적으로 보면 울음 상황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상대방 위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여-여에서는 ‘충고 및 조언하기’의 사용이 4.2%로 매우 적다.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2008)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감정 표현에 인색하다고 하였는데 남자는 동성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207).

23)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2008)에 의하면 남자는 어떤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를 때 침묵하는 경향이 있다(p.76).

〈표 23〉 울음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동성 간)

남-남	여-여
관심 표현하기(40.2%)	관심 표현하기(43.8%)
<u>충고 및 조언하기(15.2%)</u>	<u>비언어적 행동(24.0%)</u>
기분 전환시키기(10.9%)	<u>슬픈 감정 해소시키기(19.8%)</u>
비언어적 행동(10.9%)	안심시키기(8.3%)
<u>침묵 및 회피하기(7.6%)</u>	도움 제시하기(7.3%)

이성 간 선호 위로 화행은 동성 간과 마찬가지로 ‘관심 표현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자가 남자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슬픈 감정 해소시키기’를 두 번째로 선호하였는데 이는 상대가 여자임을 고려한 위로 화행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거나 선뜻 말을 건네지 못하는 ‘침묵 및 회피하기’ 유형을 세 번째로 선호하고 있는데²⁴⁾ 상대가 남자일 때보다 여자일 때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여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울음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울음 상황에서의 선호 위로 화행(이성 간)

남-여	여-남
관심 표현하기(39.1%)	관심 표현하기(42.3%)
<u>슬픈 감정 해소시키기(18.5%)</u>	비언어적 행동(15.4%)
<u>침묵 및 회피하기(14.1%)</u>	슬픈 감정 해소시키기(13.5%)
비언어적 행동(10.9%)	안심시키기 (6.7%)
격려하기(5.4%)	충고 및 조언하기(3.8%)
	기분 전환시키기(3.8%)

24) ‘침묵 및 회피하기’사 남-남에서는 5위로 나타났는데, 여-여에서 그 사용이 전혀 되지 않았고 여-남에서는 사용률이 1.9%로 극히 적었다. 이를 볼 때 ‘침묵 및 회피하기’는 울음 상황에서 남자의 화행 특성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한국어 교육을 위한 선호 위로 화행에 관한 연구로, 2. 30대의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각 위로 상황에서 화, 청자의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위로 화행이 어떻게 차이를 보이는지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위로 상황을 조사하여 10개의 위로 상황을 설정하였고, 담화 완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선호하는 위로 화행을 조사하였다.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하였다.

첫째, 10개의 위로 상황 중에 동성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은 실패, 이별, 손실 상황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10개의 위로 상황 중에 이성 간의 차이가 큰 상황은 이별, 질책 상황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성 간의 위로 화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병고, 갈등, 질책 상황에서 성에 따라 특이할 만한 양상을 보이는 예도 있다.

넷째, 이성 간의 선호 화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실패, 죽음, 갈등, 스트레스, 오해, 울음 상황에서 상황별로 특이할 만한 양상을 보이는 예도 있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화자뿐 아니라 청자의 성별도 변인으로 포함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조사 결과 동성 간, 이성 간에 따라 남녀의 화행 사용 양상에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밝혔는바, 이 결과는 앞으로 효과적인 위로 화행 교육을 위한 기초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진주, 「한국어와 영어의 위로 화행 대조 연구 : 한·미 리메이크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어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박했님,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위로 화행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신혜진, 「중국인 학습자의 위로 화행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우 월, 「한·중 위로 화행 대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은주, 「한국어 학습자들 위한 위로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황유진, 「한국어 학습자의 위로 화행 실현 양상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김경숙 역,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동녘라이프, 2008.
- 오혜경 역,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지식하우스, 2008.
- Burleson, B. R., “The development of comforting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 1578-1588, 1982.
- Brant R. Burleson & Amanda J. Holmstrom, “Comforting Communic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munication v II*, 560-564, 2008.
- Canale, M. & Swain, M., “Theoretical bases of communicative approaches to second language teaching and testing”, *Applied Linguistics* 1, 1-47, 1980.
- Hymes, D., “On communicative competence”, In J. B. Pride, & J. Holmes(Eds.),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Books, 269-293, 1972.
- Thomas, J. A., “Cross 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1983.

부록

위로 유형 분석 틀

번호	유형	특징	예시
1	관심 표현하기	청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	괜찮아?,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2	충고 및 조언하기	청자의 결함이나 잘못을 진심으로 타일러 주거나 충고해 주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표현	조심했어야지, 이번을 경험으로 삼아
3	긍정적인 전망 제시하기	앞으로 잘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표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다음에는 꼭 합격할 거야
4	도움 제시하기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청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표현	같이 가서 찾아보자, 병원에 같이 가자
5	격려하기	청자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화자가 용기와 격려를 주는 표현	기운 내, 잘할 수 있어
6	대안 제시하기	청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화자가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표현	분실물 센터에 가봐, 따뜻한 물 많이 마셔
7	편들기	화자가 이유 없이 무조건 청자의 편을 드는 표현	난 무조건 널 믿어, 이리로 데려와 내가 혼내줄게
8	기분 전환시켜 주기	청자가 현재 슬픔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기분이 전환되도록 해주는 표현	술 한잔 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9	공감하기	청자의 부정적인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하여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표현	정말 힘들겠다, 속상하겠네, 가슴 아팠네,
10	농담하기	농담을 함으로써 잠시 속상한 감정을 잊을 수 있도록 상황의 심각성을 낮추는 표현	그렇게 놀더니만 잘됐다, 바보냐?
11	긍정적인 측면 부각시키기	청자가 현재 처한 상황을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표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 세상에 더 좋은 남자 많아

번호	유형	특징	예시
12	안심 시키기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청자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표현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13	비언어적 행동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청자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 하는 행동	토닥토닥 해주기, 안아 주기, 옆에 있어주기
14	단념시키기	이미 지나간 상황이므로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말고 포기하거나 잊어버리라고 하는 표현	그냥 잊어버려,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
15	책임 돌리기	청자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것이 청자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에 탓이라고 강조하는 표현	시험이 어려웠나 보다, 그 애가 이상해
16	걱정하기	청자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표현	빨리 찾아야 할 텐데..., 어쩌다 이런 일이..., 어떡하냐...
17	슬픈 감정 해소시켜주기	청자가 슬퍼하는 것을 처음부터 말리려고 하기보다는 슬퍼하도록 용인하고 그 감정을 해소하도록 해주는 표현	그래 울어, 울고 싶어 때까지 울어
18	침묵 및 회피하기	뭐라고 위로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것	자리를 피한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19	일반화하기	청자가 처한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표현	다들 그러고 살아, 다른 사람들도 그래
20	바람 표현하기	화자가 청자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표현	빨리 찾길 바라,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
21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기	청자의 상황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표현	나도 몇 번이나 떨어졌어, 나는 더 심했어
22	의례적 표현하기	특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의례적 인사 표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3	관습적 표현으로 빗대기	어려운 상황을 관습적으로 굳어진 관용 표현 등을 빗대어 하는 표현	시간이 약이야

❖ ABSTRACT

A Study on the Consolation Speech Act
for Korean Education
—Focusing on close friends in their 20s and 30s—

Piao XiangChun
Chung-Ang University

Yang Myunghee
Chung-Ang Univers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olation speech acts patterns in native Korean speaker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mong Korean language learners. First, after investigating difficult consolation situations between close relationships for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o take up a large portion among Korean language learners, and finally 10 most common situations were chosen. Then, the native Korean speakers, in their 20s and 30s, were also surveyed on how to use consolation speech a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the consolation speech acts using, not only according to the gender of speakers but also according to the gender of hearers. Specifically, within the same sex, there was a substantial difference in speech acts in situations of failure, partings, and loss, whereas among the opposite sex, speech difference was found in situations of parting and reprimand. Although there were no distinc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genders of speakers and hearers in other situations,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peech act characteristics between males and females, as certain characterized consolation speech act methods were preferred according to the situ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basic learning data that can be used for effective consolation speech act education for Korean learners in the future.

Key Words : Consolation Speech Act, Same-sex, Opposite-sex, Types of Consolation Speech Act, Consolation Situations, Korean Education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